



함께

봄과 여름사이 2012

특집 “아이들에게 웃음을”



COVER STORY

누에가 나방이 되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과정마다 성장통을 겪지만 누구의 도움도 없이 기어코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픔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자유함도 없습니다.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오듯이,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 아이들도 각자의 테두리를 아름답게 깨고 나와 웃을 수 있도록 응원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 했듯이.

2012 봄과 여름사이

■ 목양실 러브레터 4

■ 특집

시 | 난 빨강 6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8

안정된 가정과 가정교육 없이 청소년 꿈 없다 14

교회는 청소년의 희망인가 18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영유아부 22

지금 선교지에서는 26

방송영상부 32

이단 대책 세미나를 다녀와서 36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골목길 따라 걷다가 42

우리 동네 구두 수선집 46

한국폴리텍Ⅳ대학 기독교신우회 48

이웃 대문 열어보기 52

■ 중부 그루터기

포토 에세이 56

나의 삶 나의 신앙 58

사모의 글 62

중부 동산에 핀 이야기 꽃 64

내 솜씨 우리 가족 71



32



52



56



64

함께6호_2012 봄과 여름사이

발행일 | 2012년 6월 30일

발행인 | 조상용

편집인 | 김용수

기자 | 심재성, 조재란, 배영미, 신신혜, 최정은

캘리그래피 | 윤지훈

디자인 | 박나래

발행부서 | 문서홍보부

주소 | 대전시 동구 가양2동 20-11 대전중부교회

전화 | 042) 622-9991

홈페이지 | www.jungbu.or.kr

구령열에 불타는 교회

글 · 조상용 담임목사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눅15장 4~6절



나에게 영혼을 주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감정은 구령의 열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열정보다 더 귀하고 값진 감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인물들은 한결 같이 구령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지 헉필드는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어떤 사람의 야망은 출세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지만,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구령열에 불타는 고백입니까? 전도는 구령열정에서 시작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해 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구령열정이 중요한 것일까요?

첫째, 영혼구원은 비참한 영혼의 파멸을 막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죽음, 자연재해로 인한 죽음,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죽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의 파멸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자유의 몸이 되는 날이 있지만, 지옥은 영원히 끝도 없이 형벌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참혹한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구령열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영혼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영혼구원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없고,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딤후2:4).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주인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바로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음을 한 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6:38-40).

셋째, 영혼구원은 천국의 큰 상금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말씀합니다(단12:3).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1등을 차지한 선수는 금메달의 영광과 함께 많은 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한 사람은 이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평생 전도하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딤후4:8). 전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마치는 말

지금 우리 교회는 양적, 질적 부흥을 위해서 전 교우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 전체가 구령열로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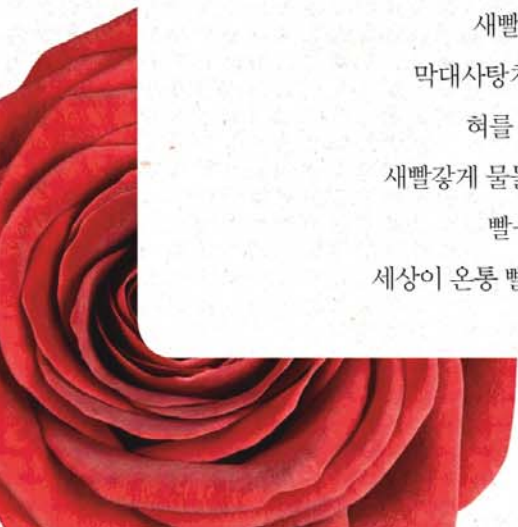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혼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며 삽시다. “주여, 우리 심장이 구령열정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with*



난 빨강

박성우

난 빨강이 끌려 새빨간 빨강이 끌려
발랑 까지고 싶게 하는 발랄한 빨강
누가 뭐라든 신경 쓰지 않고 튀는 빨강
뽕강 립스틱 빨강 바지 빨강 구두
그냥 빨간 말고 발라당 까진 빨강이 끌려
빼지도 않고 앞뒤 재지도 않는 빨강
빨빨대며 쏘다니는 철딱서니 같아서 끌려
그 어디로든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빨강
난 빨강이 끌려, 새빨간 빨강이 끌려
해종일 천방지축 쏘다니는 말썽쟁이, 같은 빨강
빨랑 나도 빨강이 되고 싶어 빨랑
빨랑, 빨강이 되어 싸돌아다니고 싶어
빨빨 싸돌아다니다가 어느새 나도
빨강이 될 거야 새빨간 빨강,
빨강 치마 슈퍼우먼이 될 거야
빨강 팬티 슈퍼맨이 될 거야
빨강 구름 빨강 바다 빨강 빌딩숲 만들러 날아다닐 거야
새빨간 거짓말 같은 빨강,
막대사탕처럼 달달하게 빨리는 빨강,
혀를 내밀면 혀바닥이 온통
새빨강게 물들어 있을 것 같은 달콤한 빨강
빨-강, 하고 말만 해도
세상이 온통 빨개질 것 같은 끈적끈적한 빨강





박성우 시인은

1971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으며 청소년문학을 하고 있다. 시집으로 [거미] [가쁜한 잠] [난 빨강], 동시집 [불랑 꽃게]가 있으며 신동엽창작상, 불꽃문학상 등을 받았다. 이 시는 시집 [난 빨강]에 실린 것으로 이 시집에는 10대들의 일상적 삶과 풍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시집에는 '아직은 연두'라는 시도 실려 있는데, '난 빨강'은 '아직은 연두'에 비해서 좀 더 성숙된 나를 나타낸다.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나만의 색깔을 갖은 가능성의 존재, 기성의 가치나 제도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존재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들만의 빨강을 인정해 주는지, 아니면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강제하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 특집 | 아이들에게 웃음을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글 · 심재성 기자



1. 청소년의 정의와 특징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적 존재이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만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사람을 우리는 흔히 ‘청소년’이라 부르며, 이는 중학교 1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에 해당되어 간단히 ‘학생’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단계이기에 신체 발달은 물론 지적, 정서적으로도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행동적으로 자기주장이 강화되고 우발적 행동을 한다든가, 심리적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중심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행동과 취미에 있어 또래집단 형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동의 특성과 성인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태이기에 때론 불안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주변 사람들의 물리적, 정신적 도움은 필수이다.

그런다면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과 함께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직접적인 다양한 경험과 책이나 다른 매체 등을 이용한 간접적 경험을 통해 많은 지혜를 연마하고 자기 수련의 시간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또래 사이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다양한 지식을 쌓으며 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2. 청소년의 실태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문화를 즐기고 어떤 생활을 하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지금의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모습을 살펴보자.

문화

청소년들은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세대보다도 문화에 관심이 많다. 특히 과거 전통적 사회와 달리 대중문화가 확산되고 발달된 현대에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폭도 무척이나 넓어졌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또래집단 형성의 특징이 있어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친구들과의 동질성을 위해 선택의 폭을 오히려 줄이는 경향이

있다. 최근 여성부가 발표한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이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을 10명 중 8명 가까이 이용할 정도이다. 이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미디어의 발달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인터넷 게임의 부정적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청소년 문화가 지나치게 획일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는 필요할 것이다.

다행히도 조사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이전에 비해 더욱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최근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노력이 많아지면서 마침 주5일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주말체험 활동의 기회가 늘어난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학교별로 동아리활동 또한 활성화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 영화, 음악 감상이나 독서와 같은 소극적인 문화 활동을 넘어 단편 영화 제작이라든가 보컬 활동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봉사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회를 준다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입시, 취업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상적인 대입구조의 현실 속에 '입시지옥', '고3 자녀 가진 부모는 죄인' 등의 말이 공공연히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70.8%, 일주일 평균 9시간 46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관심거리는 결국 입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입학사정관제 등의 도입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스펙'(specification, 구직자 사이에서 학력, 학점, 자격증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쫓아 우왕좌왕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청소년기의 모든 교육이 '대입'이라는 목표 하나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바꾸어나가야 하는 문제인지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희망을 갖고 청소년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능력과 자질을 키워나가며, 입시가 아닌 꿈과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기대해봐야 하겠다.



치열한 대입 경쟁 체제도 결국 취업의 문제와 직결되는데,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민도 지금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관심거리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책적으로 고졸 취업의 길을 넓히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대기업 등이 앞장서 고졸 공채를 늘리고 있고, 고졸 취업을 목표로 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고졸이든, 대졸이든 청소년들이 본인의 적성을 찾아 실력을 쌓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질 때, 청소년들의 고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생활(가정, 학교)

조사에 의하면 가정에서 하루 평균 자녀와 나누는 대화 시간 '30분 미만'이 아버지는 42.1%, 어머니는 22.4%였다. 청소년들 10명 중 2명 이상은 부모와 하루에 30분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지지기반이다. 하지만 여러 문제에 의해 가정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청소년 문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빈곤, 결혼 가정과 청소년 문제의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 결과나 조사 등에 의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 올바른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이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지식을 습득하여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장소이다.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와 교사를 통한 대인관계를 익히고,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습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과 지식을 쌓으며,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간다. 최근 공교육의 붕괴나 학교 폭력이나 하머 문제가 되는 사안들도 많지만, 학교는 여전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생활의 공간인 것이다. 청소년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겠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때로 소외감을 느끼며 생활하는 청소년들이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보다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매체

지금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다매체 시대에 나고 자랐다. 2000년대 들어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들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첨단 매체의 혜택을 온 몸으로 받고 있다. 아울러 어렸을 때부터 멀티미디어(영상, 소리, 문자 등이 결합된 매체)에 노출되다 보니 다른 세대에 비해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인터넷 게임 이용률의 증가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 누리소통망)의 자유롭고 활발한 사용 등은 바로 이런 이유로 나타난 청소년들의 특징인 것이다.

이러한 매체의 지나친 사용에 의해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등의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매체 시대의 청소년들은 자유로운 매체 활용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력을 기르기도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를 더욱 확대하고 그것을 청소년들의 장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 조성과 유도가 필요할 것이다.

3. 청소년의 내일

흔히 청소년은 이 나라와 이 사회의 미래라 말한다. 그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키우고, 자기 실력을 키우며, 밝은 내일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또한 다른 아닌 이 나라와 이 사회의 몫이다. 그런데 사회·제도적으로 지금의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이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 의문이다.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마냥 좋은 환경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은 곳곳하게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결국 우리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찾고 자아를 만들어 가며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지금 이 순간도 불안과 희망이 혼재한 세상 속에서 홀로 분투하며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그 길 위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더 맘껏 내달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with*



안정된 가정과 가정교육 없이 청소년 꿈 없다

글 · 주미숙 선생님(영란여중)





저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병설학교인 영란여자중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같은 캠퍼스 안에는 특성화고등학교인 이화여자대학교병설 미디어고등학교가 있는데 캠퍼스가 아름답고 학교시설이 아주 최신인데다가 즐거운 학교생활이 가능하면서도 취업률과 대학입학률이 모두 높아 많은 여학생들이 선택하는 인기 있는 학교입니다.

영란여자중학교는 서울에는 있지만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공기 좋고 학교환경과 시설 등은 모두 여유롭고 편리하고 또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재학생들의 경제사정은 좋은 편이 못되어서 50% 이상이 여러 가지 정부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결손가정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자연히 학력이 매우 낮은 상황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교가 기독교학교이다 보니 기독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덕분에인지 주변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심성과 언행이 곱고 학교 전체 분위기가 안정적입니다. 더 큰 본교의 자랑거리는 정말 학생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인지 문제 학생들이 가출은 해도 등교는 하며 학력 신장의 속도가 빠르다보니 주변학교들에 비해 성적도 우수하지요.

그렇지만 저희 학교도 최근에 와서는 타교들 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정말 언행이 거칠고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개념이 전혀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사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선생님들이 지도에 어려움으로 당황하고 계십니다.

이런 학생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기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유형별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가 부모들이 서로를 책임 질 수 없는 어린 나이에 만나 철없는 행동의 결과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어 태어난 학생들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 대개 부모들은 이혼을 하거나 가출을 하고 학생들은 조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대부분 경제적, 교육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다보니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 남을 배려하거나 분노를 조절하거나 어른을 대하는 예의바른 태도, 인내심 등에 대단히 미숙하며 꿈이 없고 기분대로 행동하며 부끄러움도 없고 욕을 잘하며 거친 특성을 나타냅니다.

둘째로는 극도로 경제가 어려운 경우로 심하면 월세로 살 돈도 없어 여관방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사는데 홀아버지나 홀어머니와만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열등감이 강하고 폭력적이며 아무데나 침 뱉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끼리끼리 모여 흡연을 즐기고 결석과 지각이 잦아 학교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늦게나마 학교에는 점심 먹으러 옵니다.

셋째는 부모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대체로 이기적이고 사회성이 부

죽하며 큰 소리로 세상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삶을 사시는 분들이지요. 예전에는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교사와 부모가 한편이 되어 지도하였고 그러다 보면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결국 선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목적인 선도는 뒷전이고 무조건 자녀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거나 고성으로 증거를 요구하거나 위협하고(심지어는 술을 드시고 오는 분도 있고 일가친척 때로 몰려오기도 합니다) 피해의식을 표현하는 등 교사와 부모의 협조가 안 되다 보니 해결이 안 되고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대개 목소리 크고 사나우며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남을 배려 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며 의무는 외면 한 채로 권리만 내세우고 책임감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은 생각 안하고 지도받은 것에 분개하고 신고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이외에도 사례는 더 있지만 위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올바른 정상적인 가정과 따뜻한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캠퍼스 안에 있는 이대병설 미디어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많아 성적이 우수함에도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것도 미디어고등학교 진학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채롭고 여유 있는 커리큘럼에 따른 학교생활과 학교를 신뢰하고 자녀를 맡겨 주시는 보통의 학부모님을 뒤에 두고 있는 재학생들의 표정은 꿈과 자신감으로 꽃으로 가득 찬 봄의 교정만큼이나 환하고 활기칩니다.

든든한 가정이 뒤에 없어 아직도 어두운 곳을 헤매고 비뚤어져 있고 거친 학생들... 그러나 생각하면 너무 가련해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학생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에게 작은 힘을 보탬 수 있는 지혜를 부족한 저에게 주소서”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곤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방법은 안정된 가정,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이 마치 학교의 책임인양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말 상황을 너무 모르는 보도여서 기가 막힐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집 가운데 모시고 모든 부모님들이 온전한 가정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는 길만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with*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는가?

글 · 임규혁 목사(고등부)

오늘날의 청소년 하면 왠지 부정적인 단어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가출, 자살 등 온갖 부정적인 단어들이 청소년들의 삶을 무겁게 하는 듯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느끼는 그들 자신의 삶도 어른들이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시선과 같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전체 OECD 23개국 가운데 최하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물질적 행복도는 4위이지만 주관적 행복도는 즉, 지금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가는 물음에는 4년 연속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함을 느끼지만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행복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교회가 가진 근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궁극의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그 질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가 양보할 수 없는 궁극적 목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



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들고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양보할 수 없는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족속”을 단순히 나라와 종속의 개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으로 봐야 한다면 즉,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성년 그리고 노년으로 본다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봐야하고 오늘날 교회들의 성인들 주위의 전도 프로그램과 선교 사역은 좀 더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교회는 오늘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시대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첫째는 청소년의 눈높이로 어른들의 높이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가 아닌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통계청 발표 “201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69.6%가 삶에 전





반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34.3%는 자신의 고민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다고 답했고, 저녁식사를 부모와 함께 한다는 응답은 33.4%에 불과했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소통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눈높이를 낮추어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미래에 투자하라 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인지하고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에 투자하기를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해야 할 과업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막10:14)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청소년들이 교회 내에서 마음 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여건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노령화되어 가는 한국교회는 서구 유럽의 교회들을 보며 무엇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강하여짐을 통해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래의 문제는 또래들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옆에 늘 있는 그들의 친구들입니다. 신앙으로 잘 훈련된 좋은 친구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믿는 청소년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국가들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열쇠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그들은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생명이 없는 사회에서 생명을 갖게 되고 살아갈 힘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부디 교회가 꿈을 잃어버린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with*

교회의 미래와 함께 새로운 출발이다

글 · 윤정옥 전도사(정리 최정은 기자)

우리 중부교회 영유아부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최미자 권사님의 지도하에 5살부터 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100여명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최 권사님이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하자 교회는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유아부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2010년 말 새해 첫 주일을 열흘 앞둔 수요일 밤, 목사님은 나에게 2011년 새해 첫 주부터 영유아부를 신설할 것을 말씀하셨다. 난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목사님의 말씀에 적잖이 당황했다. 그 후 여러 번 논의 끝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내가 먼저 유치부 예배에 참석하여 실전(?)감각을 익히기로 하였다.

2011년 첫 주, 그동안 봉사했던 성가대를 내려놓고 유치부 예배에 참석하여 흐름을 파악하고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였다. 예정된 반도 없이 유치부 예배에 참석



했는데, 9시 예배를 드렸으므로 유치부에서는 주보 접는 일로 봉사하면서 열심히 참석하였다. 그러던 중 제일 어린아이 담임이었던 이선미 선생님께서 둘째 아이 출산으로 인하여 교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그 공백을 내가 감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내면서 영유아부 교사 모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교사 할 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유아부 교사는 아기를 돌보는 일이라 쉽지 않다' '엄마들이 함께하니깐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더 부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유아부 교사를 기피한다는 말들이 돌았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되는 일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멀리멀리 도망치고 싶었으나, 모든 것 내려놓고 주께 받은 사명 앞에 무릎 꿇어 주의 도우심을 기도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 출산한지 몇 개월 안 된 이선미 선생님께 찬양율동 교사를 맡아 줄 것과 선생님들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아기 엄마들을 주축으로 교사진이 편성되었고 때마침 지하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 지난 5년 여의 공백을 깨고 2011년 10월 첫 주일부터 영유아부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내가 영유아부 담당교육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으며, 주요 임원으로는 부장 김순이 권사님, 총무 이선미 집사님, 회계 박은정 집사님, 서기 박영재 집사님이 섬기고 계신다. 영유아부는 파트가 워낙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엄마 선생님들이 한 파트씩 담당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와 주보는 봉명선 집사님, 피아노는 김경희 집사님, 손 유희는 강태월 집사님이 각각 섬기고 계시며 한두 달에 한 번씩 김선미 집사님이 구연동화를 해 주신다. 보조교사로는 권연옥 집사님과 전용주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는 아이들을 전담하여 주시며 간식도 나누어





주신다.

영유아부는 특별히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움직이지는 않지만 각자가 가진 작은 달란트를 기꺼이 드러는 헌신의 모습이 아름답다. 영유아부는 작은 손재주, 부족한 말솜씨, 어설픈 몸짓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용가능한 장소이다.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찬양에 몸을 맡기고 울동도하고 성경암송까지 하는 것을 보면 감동 그 자체이다.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는 그 즐거움과 아이들 때문에 마땅히 봉사할 곳을 찾지 못하던 엄마들이 자신의 작은 섬김으로 한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피아노 담당인 김경희 선생님은 어린 아들 2명을 데리고 오셔서 반주를 하는데 아이가 옆에서 함께 피아노를 치곤 한다. 그리고 울동담당 이선미 선생님도 울동을 하다보면 둘째 딸 가은이가 엉겨 붙는다. 아이들이 엄마 선생님한테 엉겨 붙으면 할머니 선생님이 떼어가곤 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유아부 예배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풍경이다. 새내기 선생님들은 때때로 대표기도도 실수하고, 앞에만 서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엄마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기에는 영유아부 예배실이 너무 협소하여 특별활동 시간에는 몸을 돌릴 공간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엄마들의 영적상태 유지를 위해서 아이들만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예배드리기에는 섬기는 교사들의 수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좀 더 넓은 장소와 많은 교사들의 지원과 헌신을 바라는 작은 욕심도 가져본다.

영유아부가 다시 문을 연지 어느덧 8개월이 되었다. 영유아부 아이들 모두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고요히 주 앞에 었드린다. *w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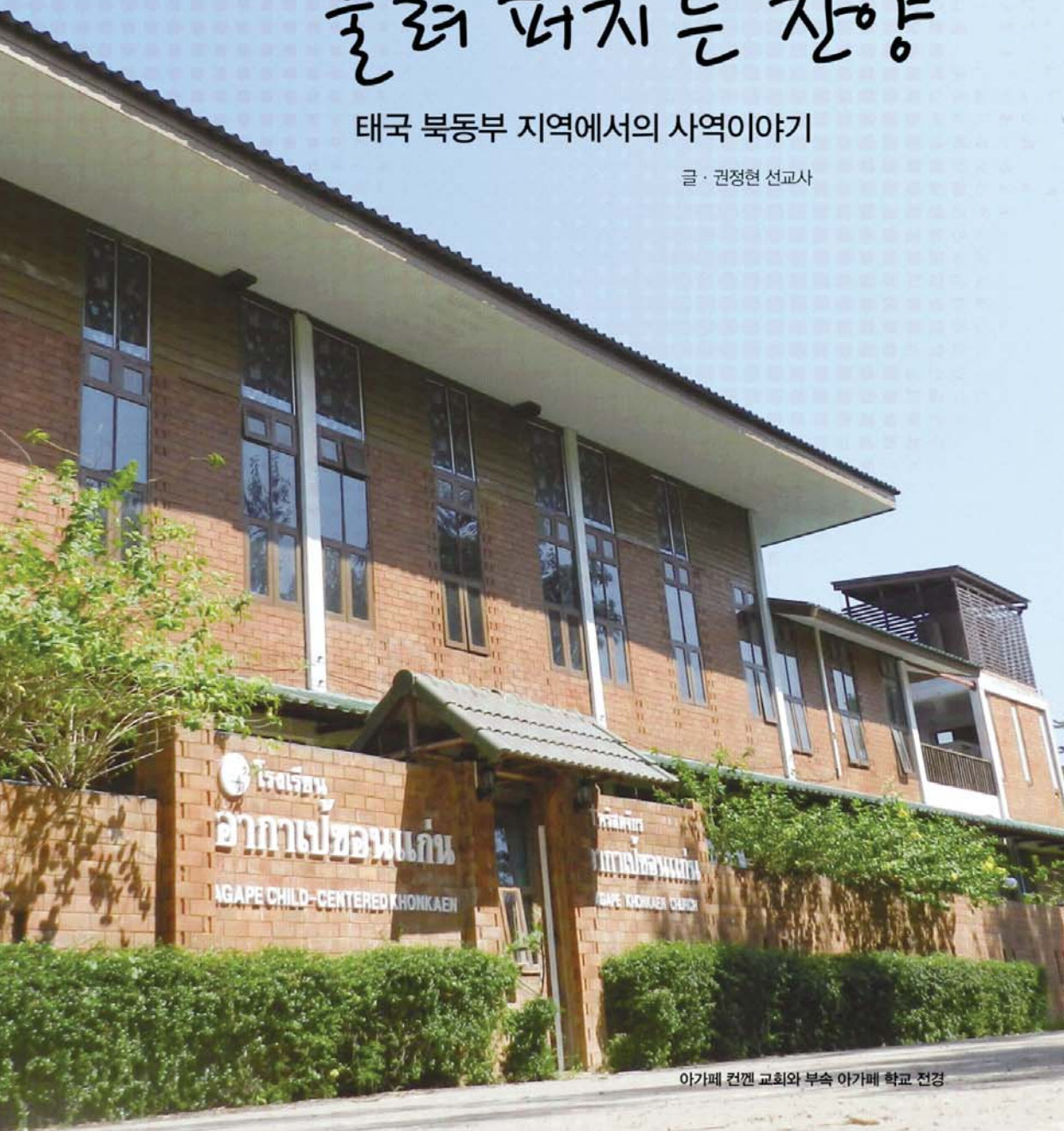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지금 선교지에서는

컨겐에 울려 퍼지는 찬양

태국 북동부 지역에서의 사역이야기

글 · 권정현 선교사



되 짚어보는 지난 일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바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복병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최선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의 선교사역 준비기에도 그랬습니다. 모교인 대전중부교회의 파송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3년 간 광주침단교회에서 목회와 선교훈련을 받게 하였고, 늘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온 저를 낯선 곳에 적응시키시며 준비시키셨습니다.

2002년 12월8일, 마지막 선물 같은 함박눈의 환송을 받으며 아직 첫돌이 지나지 않은 에스터를 둘러 업고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도착 이후 안정되기까지 윤명호 선교사께서 형님같이 넓은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돌봐주셨습니다. 2003~5년 태국어를 배우기 전에 김정배 선교사가 원장이셨던 싱가포르 타문화선교훈련을 수료했습니다. 강의와 경험은 선교지를 미리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고 타문화권 속에서 가족들이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실전은 냉정했고,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다. 아이들이 언어문제로 유치원에 적응하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했고, 엄마와 떨어져 학교 가기 싫다고 몇 날 며칠을 울다 탈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명감의 엔돌핀이 너무 충만해서였을까요? 그 모든 상황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 순간들을 아이들과 아내가 버텨주었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태국으로 다시 귀임해서 2년의 언어과정을 마치고 태국 문교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초등6학년 과정 졸업인정 시험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2005.5~2011.6 첫 1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평생선교라는 그림으로 보면 기초를 놓는 시기였습니다.

1. 교회사역의 기초

여러 번의 컨셉 답사 끝에 임동현 목사님과 광주침단교회, 그리고 현지 교역자들의 도움으로 최적의 건물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역은 접촉점을 위해 한글과 영어, 음악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역에 학원이 그리 많지 않고 학습에 대한 열기가 커가던 시기라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전도지를 돌리면 다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또 떠나갔습니다. 그런 일들을 수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낙심이 되고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남았습니다. 사금을 채취하듯이 아주 적은 순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보다도 한글보다도 음악보다도 예배가 좋아 남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셀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개의 셀 그룹

- 01 칸켄 지역을 넘어 태국 전역에 감동의 선율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가페 챔버
- 02 셀 그룹 모임



이 모여 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팀도 갖추었으며 자체 전도 팀을 구성해서 전도집회와 이웃접경나라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북쪽의 산족마을)의 선교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2월 교회 헌당예배 후 한국을 방문해 공연과 선교보고를 하면서 감사를 나누었는데, 정작 감사한 것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열정과 신앙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기 사역 동안 교회의 기초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2. 문화사역의 기초들

초기에 전도를 위해 아내 한지숙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라는 특성이 갖는 한계에 부딪혀 점점 호응을 잃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 사역자로 시애틀에서 온 청년 앤디를 통해 바이올린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산의 저렴한 악기 구입비와 간편한 휴대와 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현악으로 구성된 아가페 챔버의 기틀이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연2회 이상의 정기공연 사역과 자선, 초청공연을 하고 있



고, 후원하는 기업체도 생겼습니다.

올해는 태국 TV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역예선을 통과한 2,000여 팀의 4차에 걸친 예선과 경합을 뚫고 TV 출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어떻게 인도하실 지 모르지만 아가페 챔버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복음을 위한 좋은 접촉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아노 전공인 한지숙 선교사가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한국에서 전공하신 분들을 모셔서 1년에 두 차례 음악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이들이 기술적으로 한 단계 뛰어 오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3. 학교사역의 기초

2008년에 새로운 교회의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예배처로서의 기능과 역할 외에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립하는 교회, 또 재생산하는 교회의 비전을 저희 아가페컨텐츠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화율이 0.3%인 상황에서 성도의 부흥만으로 자립하기는 어려운



◀ 병원 심방으로 전도 중인 권정현 선교사



▶ 아가페 컨셉 교회 부속 아가페 학교 어린이들과 한지숙 사모

상황인 듯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앙교육과 자립이 가능한 한국교회의 선교원을 떠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데는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재정 형편이 될 때 마다 성도들과 단기 팀의 힘으로 벽돌을 찍고 쌓고 하다 보니 오래 걸렸지만, 도리어 여러 부분에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사랑도 눈물도 모두 쏟아 놓은 곳이라 건물을 지으며 사람도 같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부가 아닌 문교부 인가를 받아야 했기에 절차상의 어려움과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서류가 통과되어 2012년 3월에 정식 문교부 인정 사립학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학교의 비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잘 가르치는 학교, 아이들의 성품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학교로 좋은 입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자립 학교지만 앞으로 교회가 자립하고 재생산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도 이 기간 중에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2011.6~현재 안식년과 그 이후의 사역

짧지만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한 기간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모든 부분에 기초가 놓이는 시점에 잠깐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정리하고 다음 2기 사역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하나님이 하계 하신 그 기초들 위에서 달려갑니다. 또 어떤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일에 순종할 것입니다. 계속 기초만 놓으라면 그럴 것입니다. 다시 건물을 세워가라면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열매를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10년을 달려갈 것입니다.

두 번째 10년은 많은 동역자를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으로만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돕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돕는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학교에, 챔버에..., 이렇게 앞으로 10년을 동역자를 세우고 찾는데 보낼 것입니다. 기도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알려 드립니다. *with*

기도 제목



사역 위해 | 사역의 재정과 자녀들 학비가 채워지도록 | 문화사역의 동역자 위해 | 만짜군에 교회설립과 동역자 위해 | 5월 학기 시작 때 아가페 유치원에 많은 아이들이 입학하도록 | 자녀와 건강 위해 | G-9에 진학한 요셉이 잘 적응하도록 |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비전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도록 | 에스더가 더 많은 좋은 태국 친구들이 생기도록 |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함을 입도록

긴장 또 긴장, 그리고 보람

글 · 최정은 기자

JBS를 아십니까? 미국의CNN, 영국의BBS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 방송미디어계를 쥐락펴락하는 JBS(Jungbu Broadcasting System)가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 대전의 중심 대전중부교회에 있다. '내쇼날 지오그래픽'보다도 '아마존의 눈물'보다도 장엄하고 감동적인 JBS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생동감과 열정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교회 방송영상부의 역사를 잠시 들여다보자. 1986년경부터 윤여승 집사님이 방송부를 맡아 오시다가 1988년 6월에 김덕현 장로님이 중부교회 관리집사님으로 오시면서 방송부에 합류하게 되었다. 1998년에 처음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2000년 9월 김덕현 장로님의 권유로 윤상덕 집사님이 합류하였으며, 2000년 10월 8일에 주일 첫 영상예배를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시설을 갖춘 영상을 겸한 방송영상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영상예배를 시행하는 교회가 대전에서도 몇 없을 정도여서 긍지와 자부심 또한 대단하였다고 한다.

토요일에는 주일에 사용할 방송영상 제작 및 교회의 모든 공식 예배는 물론 여러 행사에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봉사하는 방송영상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시작 30분 전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 기도와 함께 봉사를 시작한다.

방송영상부의 부장이신 윤상덕 집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서의 애환과 보람은 무엇일까? "방송영상은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장비를 다루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지식 습득을 위하여 부단한 자기노력이 요구됩니다. 담임목사님의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 영상, 자막 등을 수집 편집하여 예배시간에 적절히 송출함으로써



써 예배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목회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때때로 많은 보람도 느낍니다.”

2010년 4월 본당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방송 영상장비를 더욱 현대화 하며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메인스피커, 조명 및 무빙장치, 영상장비(Panasonic Camera & Pan Tilt Zoom), 음향장비(Digico SD9 console, 국내에서도 15대 정도만 보급된 최고급 기종) 등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방송장비는 우리교회와 방송영상부의 자랑이자 긍지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맥가이버 윤상덕 집사님(부장), 꿈을 먹고사는 남자 영원한 청년 정찬호 집사님(서기), 행복바이러스 유영삼 집사님(회계), 방송영상선교의 소원을 품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김정 청년(요원), 숨은 일꾼 진사영 청년(요원), 미모의 피아니스트 도한옥 집사님(요원), 아름다운 여장부 윤진선 집사님(요원) 등 모든 임원들과 봉사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헌신하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

다도 더 귀하고 큰 자랑거리가 아닌가 싶다. 또한 임원은 아니지만 정영훈 전도사님, 하우진 전도사님, 박종환 전도사님, 홍대훈 전도사님, 김현철 관리집사님 등이 그림자 처럼 늘 함께하시며 방송영상부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신다.

“기계 종류를 워낙 좋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했어요. 현재는 열심히 업무를 배우고 있는 중이며 봉사를 시작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네요. 오지 말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그만두라고 할까봐 그것이 걱정이지요. 호호호...” 윤진선집사님

“반주와 지휘만 하다 보니 새로운 부서에서 색다른 봉사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만만한 일이 아니더군요. 좀 더 많은 달란트와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신 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하나 보람을 찾아갈 생각 이에요.” 도한옥집사님

“방송(미디어) 사역에 섬김의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담아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싶고, 성도님들의 예배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 청년





2011년 12월 말, 우리교회 방송영상부의 산증인이신 김덕현 장로님께서 20여년의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방송영상부 봉사를 내려놓으셨다. 얼마나 많은 보람과 아쉬움 그리고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셨겠는가. 김덕현 장로님은 “예배 전일 영상편 집 및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끝내고도, 정작 예배 당일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방송이 되지 못할 때는 너무도 안타깝고 아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생방송이므로 예배시간 내내 봉사자들이 초긴장 상태로 봉사해야하는 등 애환이 많습니다.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성도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았다.

우리 중부교회 방송영상부의 기초를 다지고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김덕현 장로님과 윤여승 집사님 그리고 윤상덕 집사님! 이 분들의 땀과 헌신이 있으셨기에 지금 우리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데 은혜롭고 수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송영상부의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는 방송영상부의 모든 담당자들이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부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with*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글·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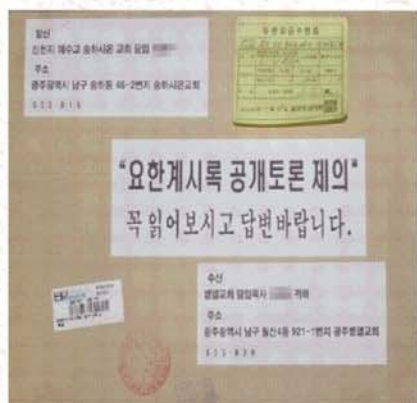
5월 19일 토요일이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신선한 아름다운 주말에 발걸음을 교회로 향한다. 점심을 금식하며 갖는 이단대책 금식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토요일은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늘 설레이는 날이다.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 볼까? 누구를 만나 볼까? 이런 날에 금식을 겸한 세미나에 간다는 것은 매력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자꾸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다. 도대체 왜, 요즘 이단세력이 이렇게 공공연한가? 파괴적이고 전투적으로 기존의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알고 싶었다. 듣고 현실을 보고 싶었다. 교회에 도착하니 유명 강사를 모시고 하는 부흥회도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와 계신다. 모두 나와 같은 심정으로 모이신 듯 하다. 아, 이단 문제는 이제 강 건너 남의 일이 아닌 것이구나. 언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트리고, 나와 나의 가정마저 무너트릴 수 있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 많이 올라와 있다. 신천지 집회에 대한 것을 일부러 찾지 않으려 해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 전 플래시몹(Flash mob)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다. 부산역에서, 삼성동



코엑스 광장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문화인 플래시몹을 조직적이고 세련되게 구현하고, 현수막을 펼치며 신천지를 공공연하게 선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천지는 이제 지하에서 은밀히 행동하는 은밀한 조직이 아닌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일반인이 이것을 본 후에 신천지를 만나게 된다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세미나의 초점은 신천지에 맞추어졌다. 이영환 목사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보혜사가 맞는가?”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다. 신천지는 요14:16(예수님의 고별설교, 또 다른 보혜사) 말씀을 왜곡하여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 말로 중보자, 대언자, 위로자, 보혜사라는 말이다. 요일2:1에서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셨다. 요14:26에서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다. 이만희 총회장이 다른 보혜사 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설교를 하실 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지만 이만희 총회장은 1931년 태어난 자연인이다. 이 한가지만으로도 신천지는 거짓 진리이다. 진리는 단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



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만희 총회장도 죄인인 것이다. 구원자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 이런 것만 보아도 신천지의 모든 교리는 가짜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성경 말씀만으로도 이단이 허구임을 알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단에 쉽게 정도되는가? 성경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모든 이단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통일교도, 신천지도, JMS도, 물론교도 모두 교주 중심의 이단 아닌가?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성도들이 신천지로 개종하는 것인데, 신천지 개종자들은 본인들이 다니던 교회나 친분이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서 신천지로 개종할 것을 권유한다고 하기도 하니,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다. 나만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를 작게 여겨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상처받고, 나와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던 믿음의 형제가 미혹되어 이단으로 향하면, 그 다음은 나와 나의 가정이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신천지에 미혹되어 활동하던 분들의 간증도 있었다. 권남래 전도사는 7년여를 신천지에서 믿고 따르던 분으로 지금은 잘못 된 과거를 회개하고 신천지의 실태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권 전도사는 2011년에만 전국의 1만5천여 명의 성도가 신천지로 개종했으며, 대전지역에서만 1천200여 명이 개종했다고 전했다. 권 전도사가 알려진 신천지의 전도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수집 단계 :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모든 인적, 물적, 관계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2. 섭외단계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 3~20명의 팀을 조직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한다. 우연을 가장한다. 그들은 거짓말로 속임에 능하고, 준비된 연기력을 가지고 있다. 어려움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다.
3. 복음방 단계 : 처음 만난 1:1 단계에서 성경공부, Q.T를 가장한 복음방 교사를 만나게 하고 공부하게 한다. 신천지는 반드시 성경구절을 통해서 설득한다. 비밀을 지킬 것을 요



구하고 성경공부를 통해서 기존의 모든 성경관, 신앙관을 바꾸어 놓는다.

4. 센터학습 단계 : 주 4회, 매일 2~3시간 씩, 초등부터 중등, 고등 교육을 가르친다. 6~8개월 교육한다. 센터는 복음방 단계를 마친 후, 면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5. 수료식 단계 : 센터학습을 마치면 시험에서 90점 이상 받고, 1 사람을 신천지로 인도해야 수료 자격이 생기며, 수료한 사람은 신천지 교회에 가서 정식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신천지의 특징은 성구중심, 단어 풀이 중심이다. 앞뒤 문맥을 보지 않는다. 아전인수다. 신천지는 물론 모든 이단은 이단의 접근법을 파악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가족과 이웃이 미혹되지 않도록 보살피고 다시

돌아 온 성도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김미경 집사의 간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김 집사는 정상적인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던 중, 신천지에 포섭되어 6년여를 딸과 함께 활동하다가 잘못을 알고 돌이켜, 이제는 신천지 피해자를 상담하고 계신 분이다.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가 어떻게 유지한 교리에 미혹될 수 있겠는가 물어보는 분들이 있지만, 문제는 가랑비에 옷 젖듯 아주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 접하게 하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신천지로 전체를 말하여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14만4천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신천지에 몰입한다. 최근에 신천지가 10만이 넘으면서 이제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계속적으로 기만하고 말을 바꾸는 것이다. 진리가 아니므로 쉽게 바꾸고 변명하는 것이다. 이단의 전통적인 수법이다. 신천지는 신천지에서 재개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해는 물



영어교육을 미끼로 젊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몰몬교'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지 <파수대>

론 자살까지도 교육 받게 되고, 이를 신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연시 여기게 된다. 신천지 생활 중에 기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심한 부정감을 심어 주기 때문에 나중에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진다니 이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 파괴인 것이다. 제대로 된 종교라면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고 거짓을 말하여 포교하는가? 어떻게 거짓이 전도 전략이 될 수 있는가?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이단에 대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이단이 몰려 있고 활동하는 곳이다. KBS 방송국 옆에 몰몬교회가 있는데 몰몬교는 현존하는 3명의 예언자와 12사도를 내세워 몰몬경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둔다. 몰몬교 전도의 특징은 영어공부이다. 정장을 한 몰몬교 외국인 선교사들이 거리에서 포교를 하며, 영어 공부를 미끼로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통일교 등 모든 이단은 대체적으로 교주를 신격화 하고 있다. 이 가당치 않은 미혹에 빠지는 것을 보면 지적인 수준과 이단에 빠져드는 문제는 다르다. 지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들면 더 깊이 빠져 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신천지는 외부지향적인 포교전략을 세우고 있다. 길거리에서 드러내놓고 신천지를 알리고 있다. 더 이상 숨어서는 세력을 확산시킬 수 없다는 판단과 젊은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함이다. 탁 교수는 최근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촬영하여 공개한 적이 있는데,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만희가 어떻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만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를 작게 여겨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상처받고, 나와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던 믿음의 형제가 미혹되어 이단으로 향하면, 그 다음은 나와 나의 가정이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단의 문제를 지적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각성과 분발도 필요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색다른 것, 특별한 것, 매혹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을 버려야 한다. 교회와 목자를 신뢰해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서 목자, 성도들과 부딪치는 인간적인 문제를 교회 전체의 문제, 교리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 이단이 파고 들 틈을 주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더욱 앞장서며, 스스로 윤리적인 기준을 더욱 높이고 실천하여야 한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다. 이단에 빠져서 생활하던 이웃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야 하며, 그들이 또 다른 이단으로 나가지 않도록 포용하고 보살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 이단에 빠져 생활하던 분들이 편히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교회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을 향해 배척하고 벽을 쌓는다면 우리가 이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며 종교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나라 중 하나이다. 타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는 좋은 문화가 잘못 이단에 이용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쉽게 이단에 빠지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종교성을 갖춘 불교 등에 대해서 배척하고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교회를 흔들고, 성도의 신앙과 가정을 파괴하는 사이비 이단은 확실히 구별하고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회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지금의 이단 현상은 앞으로의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과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아, 아름답고 푸른 오월의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은 우주에 가득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구나. *with*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 골목길 따라서 - 대동 하늘정원 동네

하늘정원에 그린 꿈과 희망의 이야기

글 · 김용수 기자





[파랑새가 산다]는 그림책이 있다. 이 책은 대전에 소재한 대동 산1번지의 재개발 과정을 재구성한 그림책으로 아동심리학자인 신은혜가 글을 쓰고, 그림책 작가인 정순희가 그림을 그린 책으로 아빠의 사업실패로 엄마와 단 둘이 달동네로 이사온 하늘이가 동네 공부방에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를 이야기하며 그림을 그리던 중, 꽃밭을 그린 하늘이의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이다. 하늘이는 집 담장에 아빠와 나들이 가는 그림을 그리며 아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된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실제로 마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더욱 활기를 찾고 희망으로 변화된 마을을 보면서 희망을 배우며 키워나가게 된다. 191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벨기에의 모리스 마테를링크는 동화극 [파랑새]에서 곁에

는 행복을 파랑새라고 말했다. 대동 달동네 사람들의 파랑새는 ‘희망’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의 파랑새는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어 버리면 파랑새도 없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야기 하고자 하는 곳은 [파랑새가 산다]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대동 하늘정원 동네인데, 대동 하늘정원 동네에 사는 파랑새는 파란, 참으로 파란 희망인 것이다.

통영 동피랑 마을, 온갖 전단지와 쓰레기가 난무하던 건국대 입구, 한강공원으로 통하는 대부분의 지하도에 가면 담벼락에 그림이나 글어서 그린 작품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라고 한다. 처음에는 반항적인 청소년들과 흑인 등이 주도해 낙서로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아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다. 어떠한 종류이건 그림은 표현이다. 그린 사람



이 무언가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표현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수백억 원에 거래되는 그림부터 어린이의 그림까지 동일한 한가지는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피티 아트가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대전에는 그래피티 아트가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전이 신생도시이다 보니 그런 면도 있지만 보수적인 정서로 인해 새로운 문화에 대해 낯가리기를 심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동 산1번지 하늘동네 주변에 그래피티 아트를 즐길 수 있는 골목길이 있다. 화려한 도시를 뒤로하고 대동 산1번지는 개발이 비껴간 자리, 서민의 고단한 삶이 묻어나는 대전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알려져 있었고, 골목길은 변화한 도시의 화려함에 대비되어 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대비했다. 그러나 대전시가 추진한 무지개프로젝트(재개발 방식의 도시 재정비 방식에서 원주민을 그대로 놓아 둔 채 주거, 자활, 교육지원, 복

지 등을 일괄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 모델로 우리나라 여러 도시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로 대동 산1번지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주목할 것은 사람 사는 냄새, 사람들이 엮여가는 이야기가 있는 동네로 만들어 간 것이다. 산 등성 이에는 대전MBC와 수자원공사가 후원해서 만든 이국적인 풍차를 비롯해서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세워졌고, 골목길 담벼락에는 뜻있는 예술가와 학생, 주민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한 폭의 병풍이 펼쳐진 것 같은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반겨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대전시나 여러 기관, 예술인, 대학생들이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이곳을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이들의 꿈과 희망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다. 올 봄에 한남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학생들이 페인트와 붓을 들고 하늘정원 마을을 찾았다. 전문적으로 그림을 공부한 학생들은 아니지만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골목길을 찾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학생들이 이곳을 다시 찾는다면 자신의 이야기가 세월에 따라 남아 간 모습을 볼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섰으며, 이미 많은 성취와 좌절을 겪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불거리를 위해서도 먼 길



을 떠날 때가 많은데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체험과 꿈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바로 나의 곁에 있는 이야기를 하찮게 여기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유적을 꼼꼼하게 답사하거나,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이야기를 찾으려는 어른은 많지 않다. 우리 동네 골목의 모습, 우리 동

네가 아끼고 보호해야 할 환경을 가족과 함께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곳에 숨겨진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번 주에는 대동 하늘공원을 찾아 골목마다 숨어있는 이야기에 나의 가족 이야기를 슬며시 엿어 보면 어떨까? *with*



일과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아름다운,

신도시장 안 구두수선집



신도시장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가양동사무소 귀퉁이에 작은 컨테이너와 흡사한 구두수선가게가 있다. 가게 앞에 작은 자판대에는 구두굽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구두 수선할 때 쓰는 기계가 놓여 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한 평 남짓한 가게 안에는 여러 가지 구두 수선할 때 필요한 도구들과 기계재봉틀까지 놓여 있었다. 손님으로 알고 반갑게 맞아 주시는 사장님. 손님이 아니고 방문차 들렀다는 말에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할 얘기가 없는데” 하시면서도 반갑게 맞아주

셨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 대전중부교회에 박순애 권사님 전도로 등록하셨다는 말을 하신다. 그런데 요즘은 바쁘다보니 예배 참석이 소홀해졌다며 멋쩍어 하신다. 사장님은 이곳에서 구두수선을 한지는 약 8년이 되었다. “가양동에서 구두수선가게를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곳을 얘기 한다”고 하시는데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크시다. 그리고 보니 나도 작년에 이곳에서 구두굽을 수선한 적이 있다. 신발지퍼 고장 난 것도 이곳에서 수리를 잘 하기 때문에 단골 손님도 꽤 많다고 한다.

신도시장 안에서 구두수선 사장님을 모르는 분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만큼 성격도 좋으시다고 한다. 8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작은 가게지만 구두 수선할 때 필요한 기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장만할 때마다 빈 마음이 채워져 가는 것처럼 행복했다”고 하신다. 손님이 찾아왔다. 짧은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구두수선 할 때 다시 와요! 내가 잘 고쳐 줄게!” 하신다. 작지만 큰 행복이 이름은 없지만 야무진 손길과 사람 사는 이야기가 물씬 묻어나는 온갖 구두사이에 가득 했다. *with*



연두빛의 부드러움을 타고 걸어가는 길

비래동 승합차 구두 수선집

삼호아파트 정문 도로변에 승합차 한 대가 늘 서 있다. 6년 동안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구두를 만져준 분이 계신다. 그 분이 바로 승합차 구두방의 사장님이시다. 친근한 인상만큼이나 구두에 대한 애착 또한 크다. 사장님의 두 아들은 벌써 대학을 나와 취직하여 각자의 일을 하고 있어서 요즘 같이 취직이 어려운 때에 위안이 된다고 한다. 6년이라는 세월은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닌데 한 자리에서 꿋꿋하게 계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는 의아해 하면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말을 건네시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오셨다. 구두를 만지다 보니 손은 항상 구두약으로 까매져 있어 가끔씩 그 손을 보고 있노라면 세월을 뒤돌아보게 하신다고 한다.

일주일이면 여섯 번 정도는 그 자리에서 승합차 구두방을 찾는 손님들 때문에 꼭 나오신다고 한다. “어떤 때는 승합차를 세우기 전에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도 있다”고 하면서 수줍게 웃으신다. 그 모습에서 사장님의 자상한 성격과 조용함을 느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손님은 없었냐는 말에 “까다롭다는 것은 그 만큼 자신의 구두에 애착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손님들에게는 더 신경을 쓰면서 잘 해주신다”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손님들도 친절해지고 까다롭기 보다는 더 친밀해져서 단골손님이 된다고 한다. 오늘도 삼호아파트 정문앞이나 근처 승합차 안에서 정성스럽게 구두를 수선하시고 계신다. 승합차에서 구두 수선을 하시는 사장님을 보면서 번듯한 가게가 있어야 내 일을 하고, 단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친 오후였다. *with*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 한국폴리텍Ⅳ대학 직장신우회 탐방

예수님을 사랑하게! 대학을 활기치게!

글 · 심재성 기자



“이병호 기독교동아리는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폴리텍Ⅳ대학의 직장신우회(회장 김동우 녹색산업설비과 교수)를 소개한다. 한국폴리텍Ⅳ대학은 전국 8개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기술전문학교이다. 그동안 대학 내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기독 동아리가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번 기회에 새롭게 재창립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게 되었다.”



창립 예배는 5월 8일 오후 5시 대학에서 있었다. CBS중창단의 특별 찬양에 이은 대전성은감리교회 이병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된 예배에는 김동우 회장(왼쪽 사진)을 비롯한 20여 명의 신우들과 1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특별히 한국폴리텍Ⅳ대학의 정순평 학장님이 참석하여 신우회 창립예배를 축하해 주었다.

이병호 목사님은 마태복음 22:37-40절 말씀으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목사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맺

어질 때 회복이 일어난다. 삶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 가족, 자신으로 두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라”고 권면하셨다.

정순평 학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저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교수님, 학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으로 중심이 되어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기독신우회에 많은 후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예배 후 마련된 간단한 다과회 자리에서 신우회의 회장 김동우 교수님을 만나 보았다.



창립예배를 드린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번 예배를 통해 우리 대학 직장신우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우회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사실 그간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
니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 2의 창립을 하게 된 셈이죠. 이번에
새롭게 임원진도 꾸리고 이렇게 감격적인 창립예배까지 드렸으니 앞으로 열심
히 활동해 보려 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새롭게 임원진이 꾸려지고 제가 회장의 중책을 맡으며 사실 부담도 많이 되었
었는데, 가족같이 챙겨주는 우리 회원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오늘의 창립예배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창립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고 함께 자리해주신 정순평 학장님과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산학협력단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오늘과 같은 예배를 매 주마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 한 달에 두 번 격주
로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교수들은 물론이고 일반직이라든



가 임시직으로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예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물론 관심 있는 학생들도 모두 참여토록 할거구요.

또한 오늘은 제가 섬기는 교회의 이병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신우회 회원들이 섬기는 각 교회의 담임목사님들을 초빙하여 말씀을 청해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웃 학교나 직장에 있는 다른 신우회와도 활발히 교류해보고 싶습니다.

신우회 활동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직장신우회를 통해 우리 직장 신우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것은 물론, 이 대학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대학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대학을 활기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우리 신우회가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폴리텍Ⅳ대학 직장신우회가 앞으로 더욱 왕성히 활동하여 속한 대학은 물론이고, 이웃과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끼쳐나가기 기대한다. *with*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 이웃 참문 옛보기-대전대한방병원 마용봉사



美容室

지극히 작은 일로
큰마음을 얻는 시간

글·편집부



박금임 꾸미지오미용실 원장(왼쪽 사진)은 유화자 집사님 손길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지 약 3년 여 되시는 분이시다. 그 동안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주일에도 손님이 있으면 예배를 참석치 못하고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지난 봄의 특별새벽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삶의 우선 순위가 바뀌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박금임 원장님은 미용 자격을 얻어 미용실을 한 것이 올해로 32년 되었고, 현재의 자리에서 꾸미지오미용실을 5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박금임 원장님이 미용실과 더불어

어 오랫동안 하시는 일이 있다. 매일 한번 씩 미용실 문을 닫고 어디론가 떠나시는 것이다. 물건을 파는 슈퍼마켓과는 달리 미용실은 미용사가 없으면 손님을 받을 수가 없다. 시간이 곧 돈인 셈이다.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원장님이 휴무일도 아닌 데 매일 가시는 곳이 어디일까?

5월 17일 오전 9시에 꾸미지오미용실로 달려가 무작정 같이 따라나서 보았다. 원장님과 함께 도착한 곳은 대흥동의 대전대한방병원이었다. 현관에 들어서니 몇몇 분들이 낮익은 모습인지 무척 반갑게 맞아 주며 아는 체를 하신다. 익숙한 모습으로 5층으로 올라갔고, 5층 로비에 의자 2개를 놓고 가져 온 미용도구를 풀어 놓는다.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병원 환자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여든다. 병원에 계셔서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그 동안 자란 머리를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하는 순서를 기다린다. 매일 한번 하시는 일이 바로 미용 봉사였던 것이다.

“아휴, 많이 건강해지셨네요. 저 번에 왔을 때보다 좋아보이시네요. 다음에 오면 못 보겠어요.” “그러? 하하하... 집에 가면 우리 미용사님 못 봐서 서운하겠는디~”

대화에서 느껴지는 정이 복도 안을 가득 채우는 듯하다. 5년을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환자의 머리만 만져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만져주고 있음을 알았다. 저쪽 복도 끝에서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일등으로 오려



했는디 벌써 와 있는 사람이 있구먼 허허허”
 벌써 이곳에서 3년 넘도록 계신다는 할아버지.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깎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
 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깎아주니 이 날
 만 기다려진다고 하시면서 “오늘 뭘 일 있남?
 사진을 찍구 난리여~” “나 이쁘게 찍어줘” 아
 파서 병원에 계시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참
 밝으시다. 그렇게 9시30분부터 12시까지 많은
 고객(?)분들이 말끔하게 정리된 머리를 보고
 행복해 하면서 병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지금은 단 두 분 만이 하고 계신다.
 뒤 늦게 오신 신탄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원장님이 오셨다.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자세히 보니 원장님의 다리가 불편해 보인다. 실례가
 될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연이 있을 듯 했다. 불편해 보이는 건 사람들의 선입견이
 란 생각을 잠재우게 하는 그 분의 밝은 모습과 환자분들과의 소통함을 보면서 알았다.
 내 몸도 불편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자신이 갖은 달란트를 소리없이 베푸시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빠졌네~ 왜 이리 이빠지셨어~ 할머니 못 알아볼 뻔 했잖아요. 제가
 예쁘게 머리 만져 드릴게” “아유...그러”서툴게 대답을 하시는 할머니. 그래도 머리를
 만져주는 원장님의 손길이 좋으셨는지 금세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수간호사님이
 음료수를 쟁반에 정성스럽게 담아왔다. “수고가 많으세요. 항상 이렇게 해 주시니 감
 사해요” 수간호사가 말을 건네 온다. 이 분들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면
 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두 분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낀다고 한다. 미용봉사 오
 기 일주일 전부터 복도며, 엘리베이터에 광고문을 부쳐 놓는다고 한다. 교회에 집사님
 이시라는 간호사님의 씬씬이가 참 이쁘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마무리 할 때 쯤, 작은 체구의 아주머니 한 분이 힘들게 휠체어를
 밀고 온다. “아직 안 끝났죠?” “그럼요. 왜 안 오나했네요?” “여기봐, 이 청년 잘 생겼지!”
 하면서 휠체어의 청년을 가리킨다. 온 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이라곤 눈
 밖에 없었다. 모든 의사소통을 눈 깜빡임으로 하는 청년. 작은 체구의 아줌마는 그 청
 년의 엄마였다. “머리 시원하게 밀어달라고 할까?” 껌! 껌! “그래” “잘 생긴 청년
 오늘도 시원하게 밀어줄게” 껌! 껌! 그렇게 그 청년의 머릴 만지면서 연신 칭찬을



한다. “키도 크고 잘 생기고 눈도 멋지고 어디하나 버릴 곳이 없네, 그래. 엄마는 좋겠네” 눈가가 붉어지는 엄마는 밝게 웃으면서 그 청년의 얼굴을 하염없이 매만진다. 박금임 원장님은 재밌는 얘기를 들려준다며 머리를 만지는 동안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심없이 해 준다. 그런 원장님의 모습이 고마웠는지 그 청년의 엄마 눈가가 또 한 번 빛난다. “다 됐어” “멋져 부러, 멋져 부러~” 그 청년의 엄마는 “고맙다고 눈 두 번!” 깜빡! 깜빡! “우리 아들이 고맙다고 하네요” 순간 박금임 원장님의 입이 살짝 떨리고 있음을 보았다. “다음에 또 봐요” 그렇게 마지막 손님까지 마무리가 되고, 정리를 하면서 말한다. “이 일은 계속 할거고 한 명이라도 기다려주는 환자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와서 그 분들의 머리를 만져 줄 거”라 한다. 봉사를 하면서 “환자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닌 오히려 큰마음을 얻어가기 때문에 마음의 치유를 그 분들이 오히려 해 준다”며 이야기를 마무리 한다.

박금임 원장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변화 시켜주시고 계신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신앙이 더 더욱 성숙되길 바란다”며 오늘 함께 동참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볍다. *with*





더 많은 자유와 일을 향하여

2012년 평신도 훈련 수료식에서 80명의 수료자가 학사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던지는 것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고대 그리스의 한 졸업식에서 졸업생 중 한 명이 노동복에 사각 흠손 판을 들고 참석하였다. 다른 귀족 학생들의 핀잔에 스승은 "흠손 판을 손에 들고 온 것은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사각모를 쓰게 되었고, 사각모에 달린 수술은 노예가 자유를 얻으면 수술이 달린 모자를 쓰고 다닌 것에서 유래하였다. 배움을 바탕으로 일하기 위해서 쓰는 모자, 노동이 가장 고귀함을 머리에 쓰고 살아가는 의미,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삶의 여정이 사각모에 있다. 수료식에서 사각모를 던지신 모든 분들의 사각모에 아름다운 의미가 항상 살아 있기를 소망한다.

| 중부 그루터기 | 나의 삶 나의 신앙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God is working out his dream

글 · 가브리엘 목사





저는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정책이 시행되던 때 태어나 불합리한 시대상황을 바꾸기 위한 투쟁과 폭력이 난무한 환경에서 자랐지요. 차별정책으로 흑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독교인이신 부모님은 주님의 은혜로 시대상황의 한계를 넘어 유학도 다녀오며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아버지는 대학교수로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로 당시 흑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한국의 어르신들은 일본의 통치하에 살았던 기억이 있을 줄 알아요. 일본인이 어떻게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문화를 변질시켰는지 기억하시지요. 그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했던 차별대우와 같은 인종차별을 저는 제 고향 남아공에서 직접 겪어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인종차별정책은 유색인종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나라지만 자유가 없어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고, 시내 커피가게에서 커피를 마시지도 못했으며,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집에서만 살도록 해 정책적으로 백인들과 구별시켜 두었어요. 남아공에는 흑인, 백인, 아시아인, 인도인 등 다양한 인종이 살지만 다른 인종끼리 결혼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차별정책이 기독교인에 의해 제정되었고 네덜란드(남아공의 첫 침략국) 개척과 교회에서 인종차별정책이 국가 법안으로 채택되기 전에 교회 내에서 적용했다는 점이지요. 네덜란드 개척과 교회는 흑인, 백인, 혼혈인이 각기 다른 교회에 출석하도록 구별 지었어요. 인종들 간의 혐오감을 키우는 교회의 이런 모습에 저는 큰 실망을 했지요. 부모님이 교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사랑, 용서, 이해를 저에게 가르쳤고 어른이 된 지금 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부모님은 저희 세 자녀를 어떤 인종이든 입학이 허가되는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저축하고 저희들의 학비로 쓰셨어요.

1995년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된 후 나와 누나, 여동생은 계속해서 다민족이 공부하는 중, 고등학교를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을 때 중학교 친구를 통해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후 “하나



님, 제게 계획하신 당신의 뜻을 보여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기숙사에서 성경공부반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점차 활성화되어 여자기숙사 학생들과 통학하는 친구들도 참여해 학교 내 공식 기독교학생회로 자리매김 되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 점심식사 후 모였고 CIA(행동하는 기독교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CIA는 학교 내에서 전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전도를 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신학대학교에 지원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영어를 돕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도 익힐 수 있었고, 4학년 때 도시 변두리의 가난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 함께 도우면서 청년사역을 맡아 일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었고, 5명의 리더를 세워 청년부 셀그룹을 지도하면서 선교사님과 2년 반 동안 동역하고 있던 중 2005년 하나님께서 제게 한국교회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행을 허락하셨어요.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배울 점도 있었고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감동받은 것은 한국기독교인들이 기도와 전도에 헌신적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성경과 교리를 잘 알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교회와 교단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은 가슴이 아팠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교단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나, 한국목사님들이 담임목사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등을 보며 안타깝게 느꼈어요. 남아공에는 장로교단에 두 종류가 있었는데 1999년 연합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은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안에서 이런 연합의 열매가 나타나길 기도해요.

한국에 온지 1년 정도 지나 아내(김지은 사모)를 만났지요. 우리가 교제할 때 한국사회가 보여준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은 남아공에서 치열하게 싸워 폐지된 인종차별정책을 상기시켰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 하던 기독교인들조차도 편견을 갖고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도록 요구하셨어요. 어르신들의 인종차별은 성경말씀에 기초한 논리가 아닌 한국인의 자부심에서 오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희 부부는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두 딸이 있어요. 몇몇 분들은 저희 아이들의 피부색이 흑인들보다 훨씬 흰 편이라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피부가 흰 사람이 예쁘고 검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은 예쁘지 않다는 말로 들려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말과 생각을 통해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모든 인종이 동등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해외선교를 도울 수 있을까요?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요. 한국 내에 많은 외국인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한국 내 외국인들을 수용하고 사랑을 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비영어권국가 외국인(외국인 노동자)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꿀 수 있도록 교회가 빛이 되고 이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해요. 대전중부교회가 이런 빛이 될 줄 믿어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멋진 중부 가족들을 통해 계속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with*

기다림 중에 맛보는 은혜

글 · 서은미 사모



‘함께’지를 보면서 ‘나에게도 언젠가 사모의 글을 쓸 날이 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제의가 올 줄은 몰랐다. 아직은 사모라는 호칭에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사역자의 아내로 사는 시간보다는 학생의 아내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던 내게 ‘사모의 글’은 벅찬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남편인 정영훈 전도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대학교 3학년이었다. 당시 기독교교육학과에 다니던 나는 김요한 목사님(함께하는 교회)의 강의 ‘복음과 커뮤니케이션’을 듣게 되었다. 그곳에서 신학과에 다니던 정영훈 전도사님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강의를 충실히 들어서 인지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잘 된 것이다. 작은 교회 목사님의 딸로 태어난 나는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사역자의 아내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나에게 전도사님과의 교제는 시작부터 고민이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배우자

를 놓고 수 십 가지의 항목을 적어놓고 짝짝하게 기도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들어주셨다. 그때 '목회자는 아니 되옵시다'의 항목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아직은 목회자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 때때로 나를 감동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은 이제 바꿀 수 없는 고백이 되었다.



결혼 후 우리는 어리석은 계산과 계획으로

아이는 무리라는 생각에 억지로 뒤로 미루려 했다. 하지만 그 뒤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생각한 뒤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에 대한 깨달음의 기회였다. 5년이나 자녀가 없던 우리 부부는 항상 성도님들께 기도의 부담으로 남았었다. 알게 모르게 주위에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고 우리의 진정한 내려놓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3년 전에는 큰 아이를, 4개월 전에는 작은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읽게 되는 것 같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여도 끝없이 나에게 참아주길 바라는 아이를 보며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참아주고 계실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 아이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인해 더 가까이 다가온다. 육아로 인해 말씀 한 번을 마음 놓고 들을 수 없어 영성이 목마르며 육아고민을 상담 받을 곳이 없는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모로서의 새로운 소망도 품게 하신다.

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목회자가 되는 줄 알았던 내게 전도사님의 목회준비는 너무나 길었다. 모든 면에 열심이고 탁월하신 남편이기에 당연할 줄 알았던 기대는 계속해서 좌절을 경험해야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좀 더 우리 부부에게 겸손해지길 바라셨나 보다. 아직도 먼 길이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오랫동안 다듬고 계심에 짧은 원망 뒤에 긴 감사를 드린다. 가까운 길을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시어 은혜의 기둥이 때때로 우리에게 드리워지고 있음을 순간순간 느끼게도 하시고, 필요한 찰나에 맛보는 만나의 맛깔스러움도 느끼게 하시며, 목마름에 지쳐있을 때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는,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with*

2012년 평신도훈련 수료 및 진급식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11:29)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3-24)



2011년 한 해를 배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영적 힘을 얻어
섬에 이른 분들의 수료와 진급식이 2월 19일 주일 오후예배에
서 열렸다.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매주 정해진 시간
에 맞추어 학습 준비를 하고 교육을 받은 것은 많은 것
을 포기하고 전념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
건 가운데에서도 사역훈련 54명, 가정사역학교 10명,
교리생활반 16명이 수료하고, 14명이 사역훈련으로 진
급하였다. 수료자 및 진급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역훈련 수료

권소열 장로, 김규석 장로, 김덕현 장로, 김수중 집사, 김영채 집사, 류창선 집사, 배정만 장로, 송은
규 장로, 심재성 집사, 윤재룡 장로, 윤종명 집사, 이대영 장로, 이원명 장로, 전용주 집사, 정기조 집
사, 최영일 장로, 최용필 집사, 홍순영 장로, 구왕성 권사, 권연옥 집사, 김기환 권사, 김순이 권사, 김
영숙 권사, 김영재 집사, 김옥란b 집사, 박양금 권사, 배영미 집사, 서영순 집사, 서정자 집사, 손부
영 집사, 손석남 집사, 송영희 권사, 송정숙b 집사, 심윤중 집사, 오양순 집사, 윤옥 집사, 윤경희 집
사, 윤석의 집사, 윤정순 집사, 이명숙 집사, 이연옥 집사, 이자영 집사, 이종덕 집사, 이종란 권사, 이
종옥 권사, 이후남 권사, 임명숙 집사, 조재란 집사, 최영란 집사, 최재심 권사, 최정숙b 집사, 한민수
집사, 황경숙 집사, 황인순 집사

가정사역학교 수료

김미영 집사, 김현영 사모, 박지숙 집사, 유덕자 집사, 유승숙 집사, 윤미경 집사, 이성희 권사, 이순
옥 집사, 진정숙 집사, 최중숙 집사

교리생활반 수료

구희선 집사, 김경덕 집사, 김연환 집사, 박민수 집사, 유창용 집사, 이신순 집사, 장성민 집사, 고경
진 집사, 김용자 성도, 박정숙 집사, 이수진 집사, 이안심 집사, 이윤경 집사, 정정이 집사, 조유경 집
사, 한윤자 집사

사역훈련 진급

김상희 집사, 안중근 집사, 위성수 집사, 윤원용 집사, 이영학 집사, 김정식 집사, 문정에 집사, 류순
례 집사, 박순자 집사, 오계숙 집사, 윤미경 집사, 이명옥 집사, 이은영 집사, 최정숙a 집사

사랑의 선교 바자회



사랑의 선교 바자회가 꽃샘바람을 맞으며 열렸다. 사랑의 선교바자회는 여러 전도회와 기관이 이를 동안 힘을 합쳐 20여 판매장을 운영하여 수익금 전액을 단기선교 현지 사역비에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지역의 이웃에게도 많이 소개 되어 바자회 시작 첫날에 일찍 움직이지 않으면 좋은 물건을 구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선교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품이 들어간다. 바자회장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부서는 며칠 전부터 음식 재료를 준비하여 행사 당일에는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나마 인기가 많아서 재료가 빨리 없어지면 다음 날 행사를 위해 추가로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다.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부서는 인기가 너무 좋아도 조바심이고 너무 없어도 조바심이다. 너무 잘 팔리면 새로 구매해 오기가 쉽지 않고, 너무 안팔리면 남아서 처리에 애로가 많기 때문이다.

올 해의 행사에서는 총 7,714,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수익금에 해외선교위원회에서 별도의 후원금을 보태어 태국, 싱가포르, 몽골, 중국의 여름 단기선교 현지 사역비로 사용하게 된다. 작은 금액이라도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많은 성도의 애쓰고 힘쓴 결과가 선교지에서는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실버대학 학예발표회



실버대학 학예발표회를 5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와 함께 본당에서 가졌다. 실버대학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데 전체 140여 명의 학생 중 80%의 출석율을 자랑하며,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과로는 성경과, 한글과, 장기와, 우리춤과, 종이 접기와, 실버댄스과, 서예과, 음악과 등 모두 9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회는 주일학교 부서에서 축하 공연으로 어르신과 어린이가 멋진 하모니를 만들었다.

첫 번째 발표한 우리춤학과는 눈부신 다홍치마에 연노랑저고리로 고운 자태를 풍기며 이순임 교수와 류순례 교수의 지도로 도라지 음악에 맞춰 나비가 날듯이 전통춤을 추었다.

두 번째 무대는 음악과의 이규인 교수, 문정애 교수, 이선희 교수, 변두성 목사님의 지도로 17명의 학생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봄이 오면'을 고운 화음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하였다. 어르신들은 연세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고음을 무난히 소화해 관객은 풍부한 성량과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세 번째 무대는 실버댄스과에서 12명의 학생이 김선미 교수와 함께 가요를 곁들인 댄스를 보여 주었다. 가수 장

윤정의 '꽃의 노래'가 흘러나오자 열심히 연습한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었다. '뽕뽕'이라는 가요가 흘러나오자 한 층 더 고조된 분위기로 많은 박수와 함성이 몰아쳤으며, 발표하는 학생과 청중이 함께 댄스를 즐겼던 발표회였다.

마지막 무대는 실버대학에서 스텝으로 섬기는 변두성 목사님, 조정옥 전도사님, 윤종명 부장님을 중심으로 29명의 스텝들과 어린이 경배와 찬양팀이 어버이 은혜를 부르며 마무리를 했다.

2012 한마음 찬양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중산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이사야 38:20)



아주 오랜 옛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레위인이 전담했지만, 요즘 우리는 어린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하는 방법과 도구도 매우 다양하여 쫓고 예배에서 찬양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때에 한마음 찬양제가 5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열렸다. 매년 열리는 찬양제이지만 늘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팀들이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찬양을 선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때문이다. 유치부 어린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귀여운 모습으로 천국의 이슬같은 찬양을 선보였고, 유년부와 초등부는

나이가 더해 감에 따라서 제법 음악의 맛을 더해가며 발표했다.

중등부, 고등부는 역시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중등부 4명의 중창은 요즘 텔레비전에서 인기 있는 방식의 노래 서바이벌에 나가도 뒤지지 않을 실력을 보여 주었고, 고등부는 6명이 드럼, 키보드, 기타, 보컬로 나누어 장래 최고의 찬양팀이 될 기량을 보여 주었다.

저녁 사역반은 사역훈련중인 8명의 제자들이 준비된 찬양과 위십을 보여 주었으며, 가양10목장은 6가정의 목원과 어린이가 깔끔하고 아름다운 찬양, 찬무를 보여 주었다. 사모팀은 철저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역시"하는 감탄이 나올 만큼 중창을 선보였으며, 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교역자팀은 최신의 출처불명 망가짐스타일로 준비된 찬양, 찬무를 선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다. 마지막으로 장지이 할렐루야 지휘자가 깔끔한 마무리를 해 주어 "전문가의 수준은 이런 것이다"고 알려 주었다.

시상에서 장려상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저녁사역반이, 동상 중등부, 은상 가양10목장이, 최고 영예의 대상은 고등부 보컬그룹이 수상했다.

조상용 목사님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12월 성탄절에는 시무장로님들이 한 팀이 되어 교역자팀보다 더 멋진 찬양, 찬무를 해 줄 것을 당부하시고 약속하셨다. 꼭 성취되기를 기원한다.

2012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 그곳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고 동거한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였다. 5월 28일 옥천 공설운동장에서 어른들은 운동장에서 유, 초등부 주일학교는 실내체육관에서 문화행사부 주관으로 청년부와 도우미들의 적극적인 준비로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지난 해 우승팀인 3교구의 우승기 반납을 시작으로 열린 응원전과 시합 종목마다 양보할 수 없는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결과 3교구가 다시 우승기를 가져갔으며, 1교구와 2교구는 박빙의 경합을 벌이던 중 공동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물놀이를 앞세워 흥겨운 응원전을 펼친 2교구가 응원상을 수상했으며, 모든 교구 가족이 일사분란하게 퍼레이드를 벌인 1교구는 퍼레이드상을 수상했다.

오전에는 발목풍선 터트리기, 통 굴리기, 장애물 릴레이, 피라미드 3각, 색판 뒤집기, 신발 멀리던지기 등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통 굴리기는 마음대로 통이 굴러가지 않아 속상해하며 애쓰는 모습이 재미를 더해 주었으며, 장애물 릴레이에서는 코끼리코를 하고 5바퀴 돈 후에 제기를 차야 하는데 어지러워 헛발질을 하고, 뒷짐 지고 사탕을 입에 넣으면서 코와 얼굴에 밀가



루 분장을 한 모습은 모두를 즐겁게 했다.

오전 경기가 끝나고 점심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느닷없이 플래시몹을 선보였는데, 교구를 초월하여 각계각층(?)의 성도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율동을 하는 모습은 많은 성도들에게 생각지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단 두 번 연습한 숨씨라니 앞으로 많은 발전을 통하여 또 다른 멋진 플래시몹을 기대해 본다.

오후 순서에서는 훌라우프 릴레이,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인 남자 축구, 큰공 굴리기, 앞만 보고 달리느라 반도 더 줄어 든 물동이 이고 달리기,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팀을 선발하는 혼성 발야구, 우리 교회의 전통 족구가 열렸다. 400미터 계주에서는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달리기가 이어졌으며,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줄다리기는 남여 60명이 한 팀이 되어 힘쓰고 애쓴 결과 3교구가 승리를 했다.

2013년 한마음 체육대회는 3교구의 3연승을 누가 저지할 수 있는지, 3교구가 3연승을 이룰 것인지가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새가족 소개



조정옥 전도사(3교구 전임)

불혹의 나이 40세에 신학을 시작하여 43세부터 군산충진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섬기던 조정옥 전도사님은 강원도 평창이 고향입니다. 결혼하여 이천에서 생활하다가 9년이 지나서 남편의 사업을 따라 군산으로 이사 한 후,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 하시던 중에 어릴 때 다니던 교회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낯선 땅 군산에서 신앙에 새로운 열정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신학을 하신 구역 인도자의 권면과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실현해 보고자 신학을 하게 되었고, 부군이 유성에 사업의 터를 잡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3교구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조정옥 전도사님은 부군 노광숙 집사님(1남전도회), 큰 아들 정남(청년부), 막내 딸 소담(부산대학교 재학)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꾸미고 계신다.

장지이 지휘자(할렐루야 찬양대)

장지이는 간간하다. 그리고 고집이 있다. 찬양 할 때는 표정 하나 하나에도 민감하다. 지휘자가 이러다보니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은 긴장해야 한다. 찬양 연습에는 양보가 없지만, 토요일 날 대원과 데이트를 자청할 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오랫동안 성악을 공부하고, 많은 발표를 했지만 예배 시간의 찬양은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임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 교회로 부임하여 함께한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늘 편안한 마음이라고 한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주문하는 장지이 지휘자는 메조소프라노로 대전여고, 침신대 교회음악과, 브레멘 국립예술대학교, 요하네스브람스 시립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을 마쳤고, 현재는 침신대학교 교회음악과에 출강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자리 잡고, 한 가족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한다.



박강현 (6세. 유치부)

노래와 울동을 좋아하는 강현이는 아빠 박현식(새들외 목장), 엄마 임운정(새들외목장), 누나 박채연(초등부)과 함께 대전으로 이사 온 첫 날 박순애 권사님의 권유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어 지금까지 5년 남짓 되었습니다. 유치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강현이는 그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인지 암송을 하면 꼭 상을 타온다고 한다. 요즘은 야구에 푹 빠져 있다는 귀여운 강현이다. 엄마 임운정 집사는 아기학 교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누나 채연이는 초등부에 올라가 부쩍 밝아진 모습으로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행복해 하고 있다. 아빠 박현

식 집사는 경북 봉화군 향운교회에 부모님이 집사님으로 계시기에 어릴 적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셨다. 지금은 신탄진에 위치한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많이 바쁘지만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다. 모든 가족이 서로를 배려하고 환하게 웃으며 대해주는 강현이네는 빛이 나는 가족이다. 강현이네 가족에게서 엿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모든 이웃으로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12년 한마음수련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 15장)

우리는 개별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형제이며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하나 됨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2012년 한마음수련회가 개최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쉼을 얻고 사랑을 나누도록 준비합니다.



- 일시 : 2012년 8월 6일(월)~8일(수)
- 장소 : 안성 영락수양관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가솔리 270-2(031-672-3370)
- www.ansungyoungrak.com